

학교, 창의력 키우는 예술놀이터로!

전주시, 창의력·상상력 풍부한 인재 키우기 위한 '야호! 아이조아 예술학교' 운영
초등학생들이 중견·청년작가와 협업으로 미술 작품 만들고, 학교와 마을 등에 전시

전주시가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예술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예술놀이터로 만들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예술작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호! 아이 조아 예술학교' 작품 설치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야호! 아이 조아 예술학교' 프로젝트는 미래주역인 어린이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와 학교 인근 마을 예술가, 청년작가 등이 함께 예술작품을 제작해 학교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마을 등에 전시함으로써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 예술학교에 참여하는 전주교대 부설초 어린이들은 전북대학교의 청년작가 7명,

서학동예술마을의 중견작가 3명과 함께 학교와 인근 서학동예술마을에 전시할 작품을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교대 부설초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터이자 학습공간인 학교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조형물에 대한 136개의 아이디어를 수렴했으며, 이 중 1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참여 작가들과 2차례의 제작회의를 거쳐 10개의 작품 구상을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작가들이 본인이 구상한 작품을 학교 교정 등 설치 예정 장소에 가상으로 설치한 모습을 어린이·학부모 등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추가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또, 실제 작품제작을 위해 총괄자문 및 멘토 역할을 수행할 중견작가들의 의견 등도 수렴했다.

시는 총 3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오는 12

월 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10개의 작품을 전주교대 전주부설초 교정과 서학동예술마을 주변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예술적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어린이와 청년작가, 중견작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공동체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에 학생들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여 더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예술교육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예술가와 지역 대학생 등 우수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고창군이 '한국의 세계유산 가이드북'을 펴냈다.

세계유산의 위치를 한눈에

고창군, '한국의 세계유산 가이드북' 발간

고창군이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세계유산 가이드북'을 펴냈다.

세계유산 활용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이번 책자에는 2017년 발행한 한국의 세계유산 순례지도에 신규 등재유산인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9년 '한국의 서원' 및 잠정목록인 '한국의 갯벌' 정보를 추가 수록했다.

36쪽 분량으로 제작된 책자에는 ▲세계유산의 정의 및 소개 ▲한국의 세계유산 관

련 정보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관람료 ▲운영시간 및 휴장일 ▲교통편의 정확한 자료가 포함됐다.

또 한국의 세계유산 분포지도도를 통해 세계유산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은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유적지를 관광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세계유산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세계유산 가이드북은 세계유산 도시와 KTX용산역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고창=김영희 기자



장수문학회가 최근 장수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제1회 장수문학상 시상식과 장수문학 제30집 봉정식을 거행했다.

“시대를 리드하는 예술의 고장 장수로 거듭나도록”

장수문학회,문학상시상식·봉정식 성료

장수문학회(회장 고강영)는 최근 장수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제1회 장수문학상 시상식과 장수문학 제30집 봉정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상자는 제1회 장수문학상 본상에 권승근(장수문화원장), 장수문학상 신인상에는 이훈, 가작에 엄정규씨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장영수 장수군수, 김종문 장수군회의장, 한국회 부의장, 유일권 민주평통

장수협의회장, 후원회장 전라교육사 이정만회장, 장수문화회원,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듯이 일반 문화행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고강영 장수문학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에 창립된 장수문학회는 이제 크게 자라 그 열매와 업적을 감출 수 없는 장수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고 회고 하면서 "전라교육사 이정만 회장님의 후원으로 제1회 장수문학상을 제정하여 수상자를 내고 시상하게 된 사실은

자랑할 만한 일이며 문학을 사랑하는 지역 후배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축사에서 "장수문학 제30집을 발간해 오면서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한적인 군민들에게 문학을 접할 수 있는 제공하고 장수문학의 기동으로 자리를 굳건하게 세웠다"고 격려했다.

특히 고강영 회장은 "장수의 정신문화와 빛나는 장수문학으로, 대한민국에서 장수를 주목할 장수로, 배우고 도전해야 할 예술의 고장 장수로, 시대를 리드하는 문학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백제세계유산센터,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확정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는 '제9회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헤럴드 경제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제9회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공공기관의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재단은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전년 대비 블로그 방문자 수가 22% 증가했고,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적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 작업 진행과 시기적절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을 통한 사용자의 방문 유도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올해부터는 SNS기재단을 확대하여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콘텐츠를 제작·홍보하였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여 즉각적인 정보 등을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뿐 아니라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의 관광명소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같이 소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